

바이오신약 기술 세금지원 혜택

산자부, 첨단기술·제품 473가지로 확대 ... 개량신약도 포함

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술, 바이오신약·세포치료제 관련기술·제품 등이 첨단기술 및 제품에 포함돼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9개 분야 96개 부문 422개 세부기술·제품인 첨단 기술·제품의 범위를 10개 분야 100개 부문 473개 세부기술·제품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6월 21일 발표했다.

첨단 기술·제품으로 지정되면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자금 등 각종 정부자금 지원 우대 및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금속 나노입자를 이용한 필터, 터치스크린 등을 첨단기술로 지정하는 등 정보통신·나노·환경·문화·생명공학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첨단 기술·제품 범위에 추가했다.

특히, 디지털 스토리텔링, 감성 통합·재생 기술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도 첨단기술·제품에 포함시켰다.

또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해 신약, 세포치료제, 개량신약 관련 기술·제품도 첨단기술·제품으로 지정하고 로봇산업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제품의 내용도 세분화했다.

산자부는 기술변화 속도 및 수준을 반영해 벽걸이TV, 자동인터뷰시스템 등 상용화된 기술은 지정 대상에서 삭제하거나 기술기준을 엄격화했다.

<화학저널 2006/06/22>